

무안교육지원청 “우리 가족,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찾아가는 온종일 독서·토론·글쓰기 캠프 운영

무안행복초 대상...지정 도서 ‘신통방통 흠소핑’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9일 무안행복초 6학년 대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찾아가는 온종일 독서·토론·글쓰기 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프는 무안교육지원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평소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무안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무안군청의 지원을 받

아 무안행복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다양한 토론 기법을 활용하여 토론 및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6교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대상 지정 도서인 ‘신통방통 흠소핑’과 연계하여, 1~2교시는 벤다이어그램 토론, PMI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마음을 여는 토론 활동을 시작으로, 3~4교시 하브루타 토론, 회전목마 토론을 통해 지정 도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

동을 하였다.

마지막 5~6교시에는 토론 연극, 비주얼 씀킹 등을 통해 주제 심화 활동을 펼쳤다.

무안행복초 6학년 김OO 학생은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도 말할 수 있었다. 특히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지자체, 학교와 협력하여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시교육청, ‘빛고을혁신학교 교무실무사 직급별 협의회’ 실시

무등산 권역·포충사 권역으로 나뉜 소수 인원으로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0일 교육활동 지원 및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무실무사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2020 빛고을혁신학교 교무실무사 직급별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빛고을혁신학교 교무실무사 직급별 협의회’를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20 빛고을혁신학교 교무실무사 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혁신학교’를 주제로 마을교육공동체 ‘타라게 마

을버스’를 타고 무등산 권역과 포충사 권역으로 나뉜 소수 인원으로 실시됐다.

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혁신학교 ▲무등산·포충사 권역 탐방 ▲분임토의(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방법 찾기) 순으로 진행됐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빛고을혁신학교는 교원·행정직원·교육공무직원·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이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으로 학생들의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용봉초 임유나 교무실무사는 “내가 학교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의 학부모이고 어느 마을의 주민이면서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뜻 깊은 자리였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교육의 장이 학교를 벗어나 마을까지 확장돼 학생의 배움이 삶과 연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호남사학회 학회지 ‘역사학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재인증 평가 선정

호남사학회(이사장 강성호)는 학회지 ‘역사학연구’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2020년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등재학술지로 재인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 올해 처음으로 기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재인증 평가를 시행하였다. 재인증 평가를 통과한 학술지는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호남사학회 제16대 강성호 이사장(순천대 사학과)은 “앞으로도 ‘역사학연구’를 호남지역 역사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종합역사학술지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동부채재본부 김승호기자

한편, 호남사학회는 호남지역관련 연구를 위하여 1987년 3월에 설립되어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로 호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술성과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호남사학회는 호남의병, 여순사건, 한국전쟁 등 호남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잘 반영한 고대마한역사, 호남의병, 여순사건 등에 관한 연구와 학술발표를 진행하였다.

호남사학회는 2020년 하반기에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2월에는 6.15공동선언 20년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교육청, 통학버스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및 청렴 교육 실시

교통질서 및 청렴 의식 제고·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11일 관내 유·초·중 학교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학버스 운전자의 교통질서 및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

전 방역 소독 및 좌석 간 거리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교육 내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및 운행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민식이법’) ▲사례를 통한 청

탁 금지법의 이해 등이 다루어졌으며, 개인 정보 보호 및 성희롱 예방,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 또한 전달하였다.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우리 지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의 최일선에서 힘써주시는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적법하고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동채재본부

영암 삼호도서관,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기관’

영암군 삼호도서관이 ‘2020년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단체 부문에서 국립중앙도서관 표창 표창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기관 표창은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도서관 가치 확산과 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발전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도서관 관계자와 단체(전국 1,100여 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가·심사 후, 최종 10개 기관 선정)에 수여하는 포상이다.

삼호도서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도서관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특히, 높은 다문화 인구 비율, 은광·소림학교, 소정원 등 지역 소재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밀도와 유·청·장년층의 집중 거주라는 지역 특성을 분석 후, 해당 기관과의 MOU 체결과 그에 따른 협력 프로그램 운영 추진, 농촌 지역의 열악한 독서문화기반을 감안하여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거리 이동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조대호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